

서마권역 예술 중심지 변신

순창군, 40여억원 투자
농촌생활문화센터
추령장승문화의 길 조성



순창군 북흥면 서마권역이 농촌생활 체험과 인문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한다.

순창군 북흥면 서마권역(서마리 추령, 서지, 하마)이 농촌생활 체험과 인문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한다. 군은 최근 북흥 서마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권역단위종합개발 신규공모에 선정됐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군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세부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승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추령장승촌과 장승축제, 알뜰알뜰축제, 도립 산림박물관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눈에 띈다. 또 추령 장승문화의 길, 서지 외촌골 웰빙 맛길, 하마 박유전 명창의 서편제길 등으로 구성된 권역둘레길 조성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서 걷는 독특한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착수보고회에는 순창군 농촌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

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선정업체와 지역리더,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한편 농식품부 방침과 관련 2019년부터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순창군 권역종합정비사업의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기자

심민 군수 특별교부세 확보 구슬땀

현안 해결위해 행안부 방문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관·도로확포장

심 민 임실군수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심 군수는 1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임실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26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심민 군수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경주 교부세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임실군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 임실군 다목적체육관건립 8억원 ▲ 임실 소로 3-1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8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지원 당위성 설득에 구슬땀을 흘렸다.

먼저 임실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성 다문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복합시설 조성사업이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갈수록 증가하는 임실을 지역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테니스와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실 소로 3-1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해 지역별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개 사업의 3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3개 사업 8억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08억원),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지원사업(50억원), 임실치즈마을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원),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20억원) 등 굵직한 주요 국가예산사업을 심 민 군수는 "올해 굵직한 지역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올해 남은 기간도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임사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의장 신대용)은 16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8회 임사회를 열고, 22일까지 7일간 의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사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집

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 3,858억 원에서 218억 원이 증액된 4,076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청 홍보동아리 시그널이 수어 알리기에 나섰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홍보동아리 '시그널' 수어 알리기 눈길

남원시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할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수어 배우기 및 알리기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수어 알리기에 나선 직원들은 남원시청 내 홍보동아리에 소속 회원들로 동아리 '시그널'은 지난 2017년 남원시의 축제, 관광지, 시정을 남원시민은 물론 전국에 알리기 위해 시청 직원들을 구성되었다. 그동안 시그널은 지역대표 축제인 춘향제는 물론, 운봉 서어나무 숲, 허브밸리 등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업로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수어 알리기 활동은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매우 친절할 남원시청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시 공무원들이 청각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간단

한 수어를 익히면, '보다 친절할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이 및 알리기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가한 홍보동아리 회원은, "간단한 수어지만, 평소 익숙하지 않다보니 익숙해지는데 애를 먹었다"며, "하지만 이번 홍보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어를 남원시청 직원 모두가 몸에 익힌다면 더욱 친절할 남원시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뿌듯한 마음도 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 관계자는 "수화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행정에 필요한 위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비의 날개 짓이 태평양을 넘어 대륙에서는 커다란 바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친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 사진 전시회 개최

19일까지 관광객대상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9일까지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볼거리를 위해 남원시 예촌 앞 광장에서 지리산둘레길과 상징 숲 사진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남원시가 주최하는 남원예촌 한여름밤의 문화바캉스 행사로 2016년~2017년 서부지방산림청의 상징 숲과 지리산둘레길 사진 프로젝트 수행자인 '강병규' 작가의 거리 사진전시회 및 북콘서트(지리산과



의 대화), 놀이체험 및 버스킹 등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강병규 작가 북콘서트 '지리산과 대화'는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농민 마케팅 능력 향상

순창군이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홍보, 판매, 마케팅을 물론 고객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윈스톱 교육에 들어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사일을 마친 저녁 시간에 진행해 짧고 꼭 필요한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30회를 추진하며 20여명이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마케팅 대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활용법은 물론 엑셀, 블로그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이야기 농업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등 온라인 마케팅에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농민은 "농업인은 농산물만 생산해서는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늦은 밤이지만 컴퓨터를 마주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동충동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동충 조환익)는 16일과 17일 2일간 동 2층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기 신체·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매, 스트레스 예방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월3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월2만원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조환익 동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수 증가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일을 통한 보람과 소득창출에 기여해 나르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고독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냉방기 이용, 집안 청소기 사용, 이웃사촌 인부 물기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